

2025년 3월 18일 광주전남 2025 - 14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25년 3월 19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배포시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 현황과 소비지출 영향 분석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안지연, 업무팀 조사역 조진오

Tel: (062) 601-1116, 1127 Fax: (062) 601-1132 E-mail : gwangju@bok.or.kr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gwangju>)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붙임)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 현황과 소비지출 영향 분석

2025. 3.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작성자〉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안지연 과장, 업무팀 조진오 조사역

〈조언자〉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이준범 팀장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하는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

〈 요약 〉

I. 검토 배경	1
II.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 현황 및 특징	3
III. 1인가구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분석	7
1.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소비지출 비교	8
2. 1인가구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10
IV. 결론 및 시사점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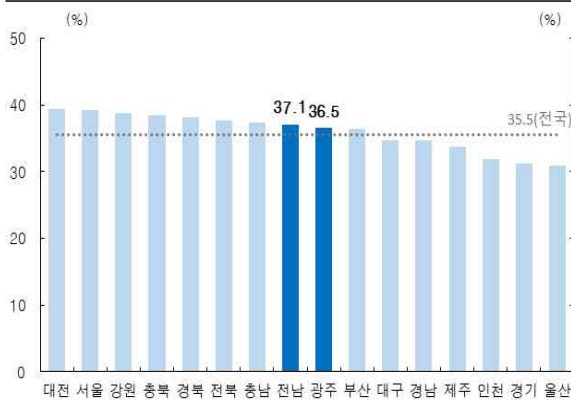
〈 참고문헌 〉

<요약>

I. 검토 배경

- 혼인연령 상승, 기대수명 연장, 고령화 등으로 한국의 1인가구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광주지역 1인가구 비중은 36.5%(22.9만 가구), 전남지역은 37.1%(29.5만 가구)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35.5%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 중 광주지역은 20-30대, 60대의 1인가구 비중이 높고, 전남지역은 60대 이상의 1인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인가구 비중>



주: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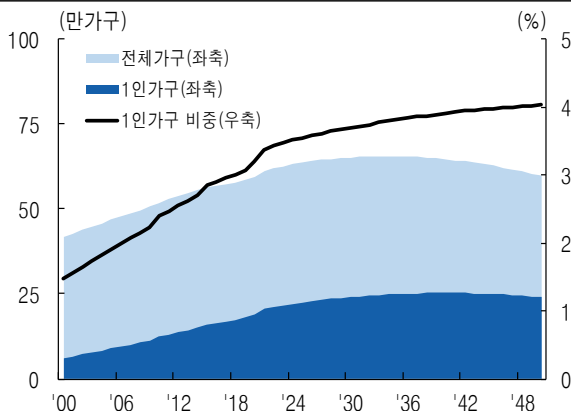
<광주·전남 1인가구 연령별 비중>



주: 1) 2023년 기준
2) 비중 = 연령별 1인가구 수 / 전체 1인가구 수
자료: 통계청, 자체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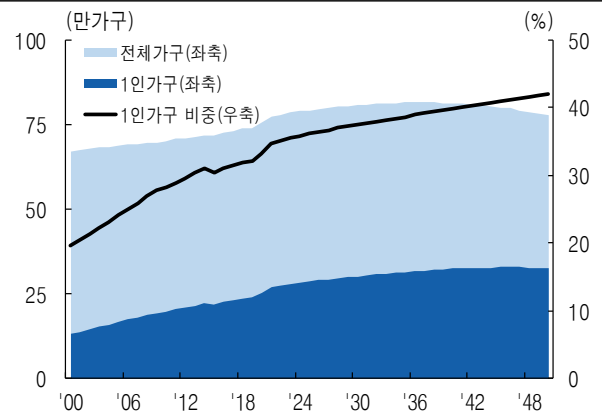
- 광주·전남지역 내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전체가 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50년 광주지역의 1인가구 비중은 40.3%(24.1만 가구), 전남지역은 42.0%(32.6만 가구) 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1인가구 수 및 비중 전망>



자료: 통계청

<전남 1인가구 수 및 비중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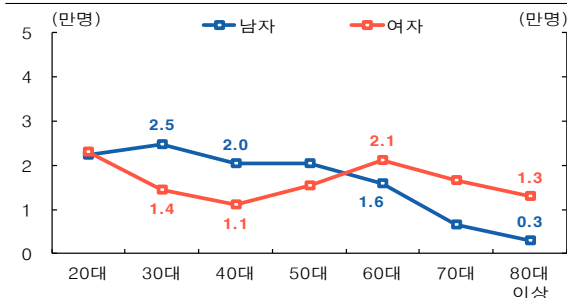


- 1인가구의 증가는 지역 내 소비와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가구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거비, 음식료품 등 필수재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반면 내구재(자동차, 가구 등)와 교육서비스 등은 소비하기 어려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지역 내 소비 구조를 변화시켜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에 본고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의 가구유형별 소득, 고용 형태, 주거 환경 등을 파악하여 1인가구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소비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향후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지역 내 소비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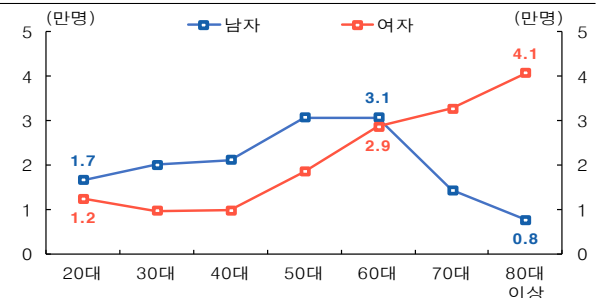
Ⅱ.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 현황 및 특징

- **(성별 및 연령별 분포)** 광주지역은 30-50대 구간에서 남성 1인가구수가 많고 60대 이상에서 여성 1인가구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30-50대 구간에서 남성 1인가구수가 많고 70대 이상에서 여성 1인가구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1인가구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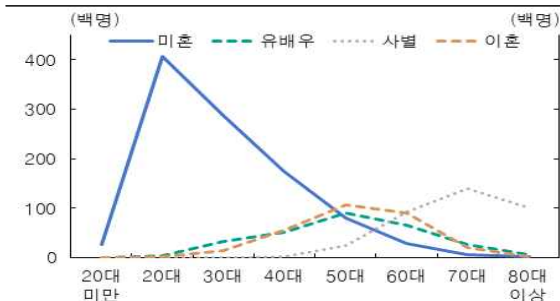
<전남 1인가구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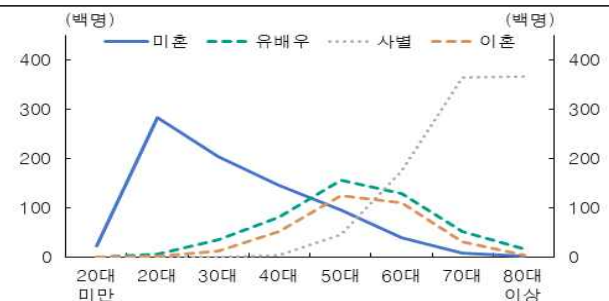
주: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 **(혼인상태 분포)** 광주·전남지역 20-40대 1인가구는 초혼 연령 상승으로 미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60대는 이혼, 70대 이상은 사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1인가구 혼인상태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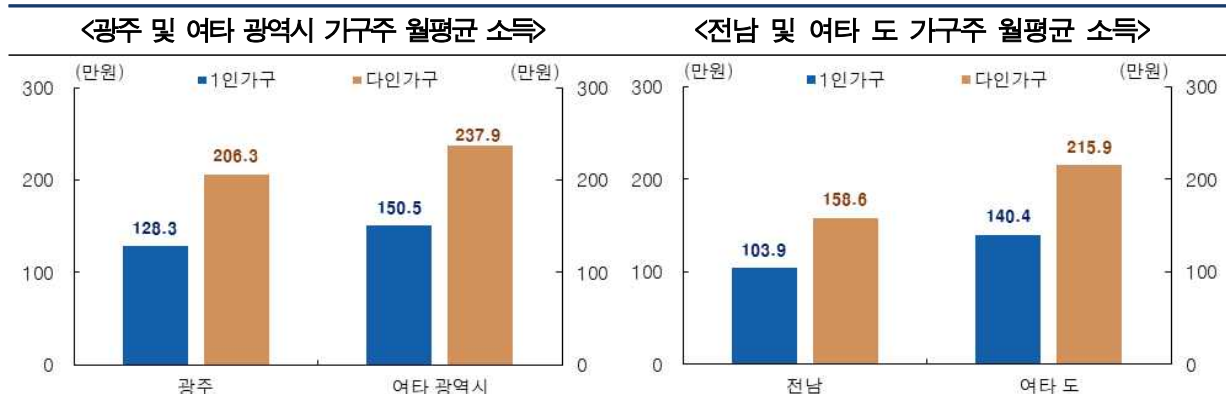


<전남 1인가구 혼인상태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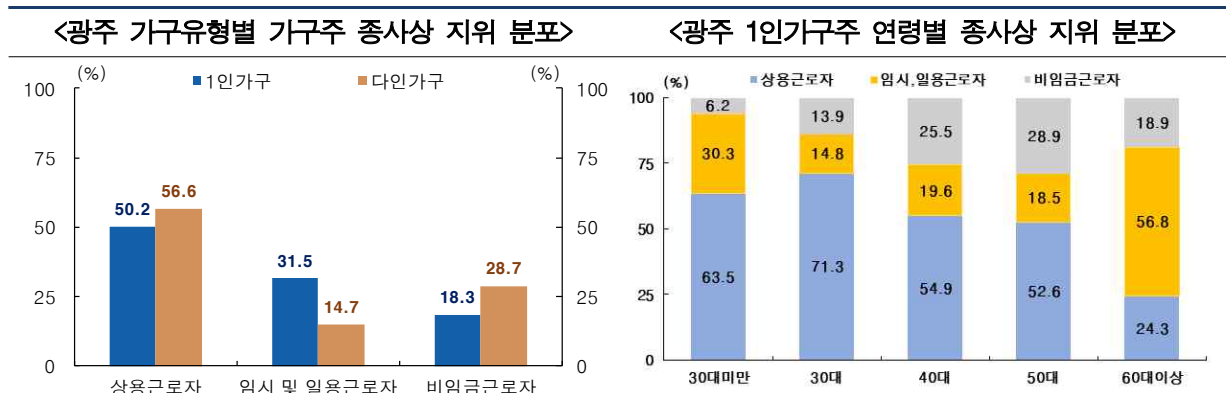
주: 2020년 기준, 자료: 통계청

- **(가구주 소득)** 광주지역 1인가구주 월평균 소득(128.3만원)은 다인가구주 월평균 소득(206.3만원)의 62.2% 수준에 불과하며, 여타 광역시 1인가구주 월평균 소득(150.5만원)보다 약 2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1인가구주 월평균 소득(103.9만원)도 다인가구주 월평균 소득(158.6만원)의 65.5%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타 도 1인가구주 월평균 소득(140.4만원)보다 약 25%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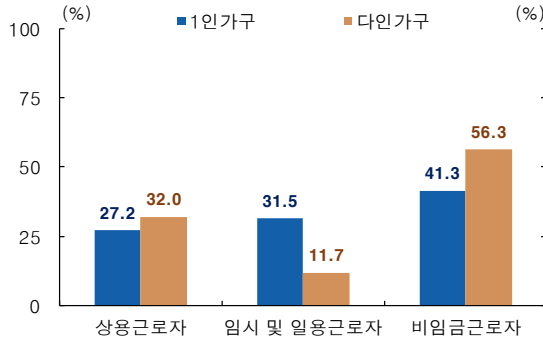
주: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2023년 지역별고용조사_하반기 C형」 마이크로데이터, 자체 시산

- **(가구주 종사상 지위 분포)** 광주지역 1인가구주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50.2%로 다인가구주(56.6%)보다 낮은 반면,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31.5%로 다인가구주(14.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1인가구주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27.2%로 다인가구주(32.0%)보다 낮은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은 31.5%로 다인가구주(1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 1인가구주 비중은 41.3%로 다인가구주(56.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연령별 종사상 지위분포를 보면 광주지역은 30대 미만과 60대 이상에서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각각 30.3%와 56.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남지역에서도 30대 미만과 60대 이상 1인가구주의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22.7%, 40.0%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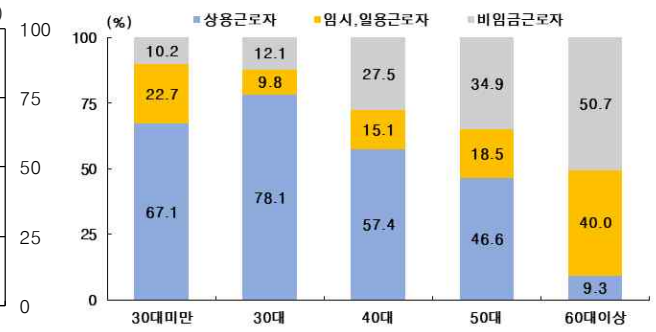


주: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2023년 지역별고용조사_하반기 C형」 마이크로데이터, 자체 시산

<전남 가구유형별 가구주 종사상 지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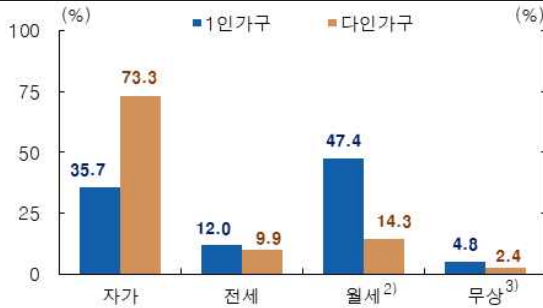
<전남 1인가구주 연령별 종사상 지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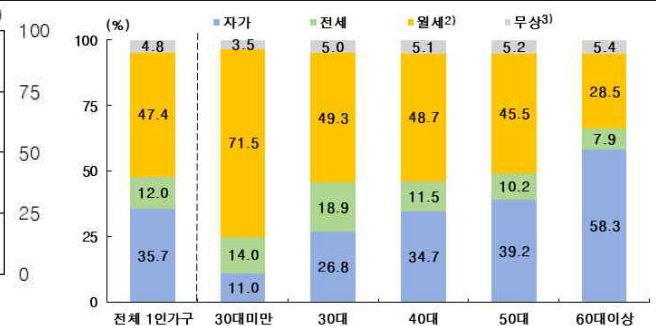
주: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2023년 지역별고용조사_하반기 C형」 마이크로데이터, 자체 시산

- (주택 점유형태) 광주지역 1인가구 주택 점유형태 중 자가비중은 35.7%로 다인가구(7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반면 월세비중은 47.4%로 다인가구(14.3%)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1인가구의 주택 점유형태 중 자가비중은 58.0%로 다인가구(77.8%)보다 낮은 수준이며, 월세비중은 25.2%로 다인가구(9.8%)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를 보면 광주지역은 30대 미만(71.5%)에서 월세 비중이 가장 높으며, 30-50대도 40%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남지역은 30대 미만(58.6%)에서 월세 비중이 가장 높으며, 30-50대도 30%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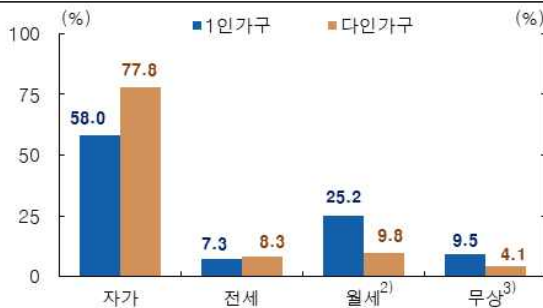
<광주 가구유형별 주택 점유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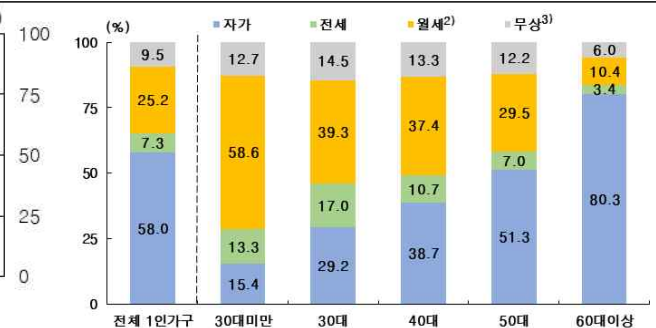
<광주 1인가구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



<전남 가구유형별 주택 점유형태>



<전남 1인가구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



주 1) 2020년 기준 2)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를 포함 3) 관사, 사택 등
자료: 통계청

Ⅲ. 1인가구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분석

-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소비지출 비교)**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1인당 평균소비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식비, 주거비 등 특정항목에 소비가 편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향후 1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지역 내 소비와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1인가구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1인가구의 소비지출에 따른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는 다인가구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생산유발효과)** 광주지역 1인가구의 소비지출은 지역 내 음식숙박, 부동산, 음식료품 등 필수품목을 중심으로 생산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인가구 소비지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인가구보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필수품목 외 교육,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 보다 다양한 부문에서 생산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남지역 1인가구의 소비지출은 지역 내 음식료품, 음식숙박, 제조업(음식료품 제외) 부문에서 생산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인가구의 소비지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음식료품, 제조업(음식료품 제외), 보건복지, 교육, 음식숙박 등의 산업에서 생산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② **(고용유발효과)** 광주지역 1인가구의 소비지출은 지역 내 음식숙박, 보건복지, 기타서비스(협회 및 사회단체, 개인 서비스업 등), 운송 부문에서 고용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인가구의 소비지출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는 1인가구보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음식숙박, 보건복지, 교육, 기타서비스, 운송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용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1인가구의 소비지출은 지역 내 음식숙박, 보건복지, 농림수산물 등의 부문에서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인가구의 소비지출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는 보건복지, 음식숙박, 농림수산물, 교육 등에서 고용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Ⅳ. 결론 및 시사점

- 이에 따라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지역 내 음식숙박, 부동산, 보건복지 등 특정 산업이 전체 지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커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다인가구 중심의 소비구조에서 활성화되던 산업(교육, 금융보험, 정보통신 등)은 상대적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 이러한 소비패턴 변화는 산업 구조의 재편과 지역 경제의 성장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1인가구 비중 증가에 따라 특정 산업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일부 산업의 위축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1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소비구조가 변하고 특정 산업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지역 경제의 성장과 복지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형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① 1인가구의 고용안정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고용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1인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기회 확대, 직업 훈련 및 재취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층 1인가구가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노인 일자리 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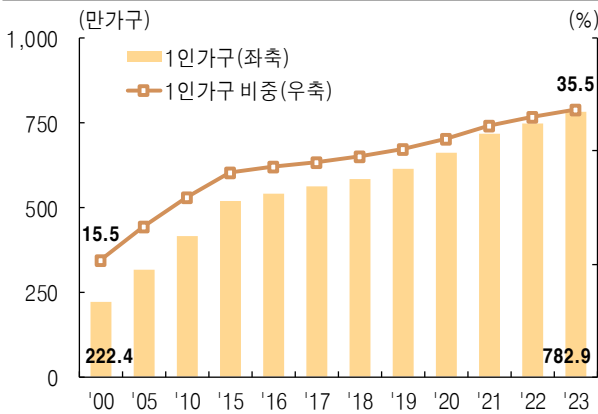
② 1인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 확보는 결혼 및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에 1인가구가 월세에서 자가·전세 등의 주거 형태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인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③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역 산업 전반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1인가구의 소비가 특정 산업에 집중될 경우 산업 구조가 단순화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면 교육 산업을 성장시키면서 고용안정성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소형 주거시설 공급 및 공유형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면 1인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지역 부동산·건설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I. 검토 배경

1. 혼인연령 상승, 기대수명 연장,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1인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1인가구 규모 변화를 보면 2000년 전체가구(1,431.2만 가구) 대비 15.5%(222.4만 가구)였던 1인가구 비중이 2023년 35.5%(782.9만 가구)로 크게 증가하였다.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1인가구 비중은 영국, 캐나다,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전국 1인가구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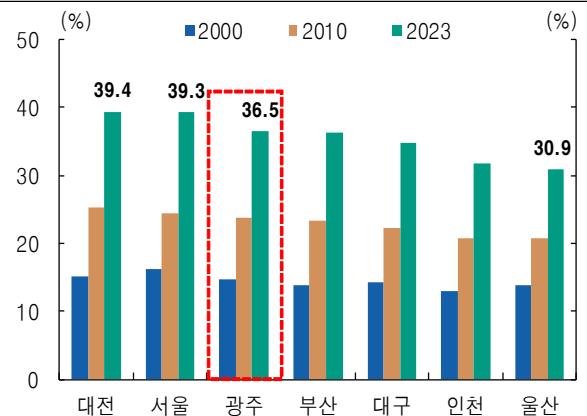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1-2. 주요국의 1인가구 비중



2. 광주·전남지역 전체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광주지역 1인가구 비중은 36.5%(22.9만 가구), 전남지역은 37.1%(29.5만 가구)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35.5%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 중 광주지역은 20-30대, 60대의 1인가구 비중이 높은 반면, 전남지역은 60대 이상의 1인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광역별 1인가구 비중 변화



주: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자체 시산

그림 1-4. 광주 1인가구 연령별 비중



그림 1-5. 도별 1인가구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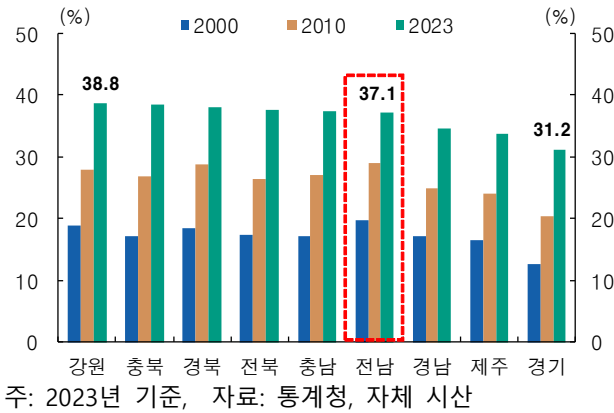


그림 1-6. 전남 1인가구 연령별 비중



3. 광주·전남지역 내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50년 광주지역의 1인가구는 24.1만 가구로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전남지역의 1인가구는 32.6만 가구로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7. 광주 1인가구 수 및 비중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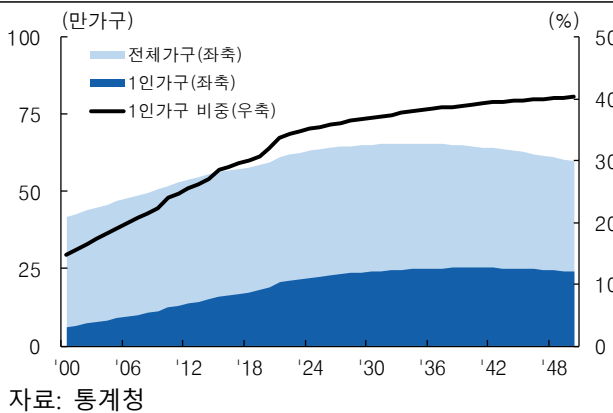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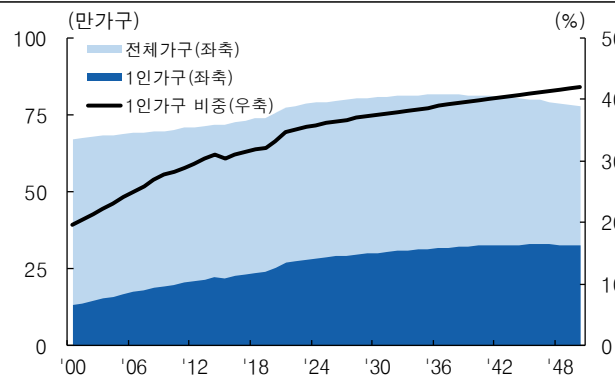


그림 1-8. 전남 1인가구 수 및 비중 전망



4. 1인가구의 증가는 지역 내 소비와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가구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거비, 음식료품 등 필수재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반면 내구재(자동차, 가구 등)와 교육서비스 등은 소비하기 어려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지역 내 소비 구조를 변화시켜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이에 본고에서는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 후 1인가구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 내 경제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광주·전남지역의 가구유형별 소득, 고용 형태, 주거 환경 등을 파악하여 1인가구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소비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향후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지역 내 소비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 현황 및 특징

6.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를 보면 남성은 30-50대, 여성은 70대 이상에서 1인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1인가구의 연령분포를 보면 남성은 30-50대가 많으며 여성은 60대 이상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30-50대에서 남성 1인가구수가 많고 70대 이상에서 여성 1인가구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광주 1인가구 성별 및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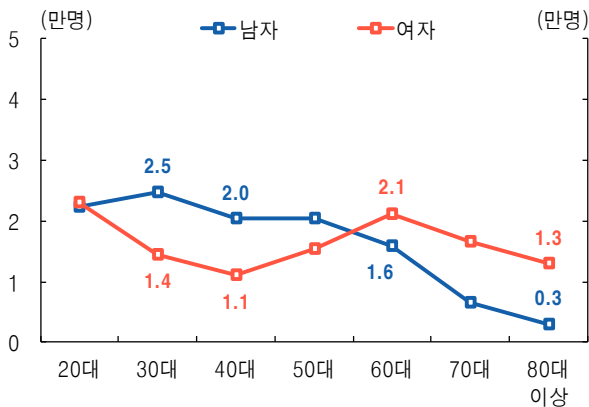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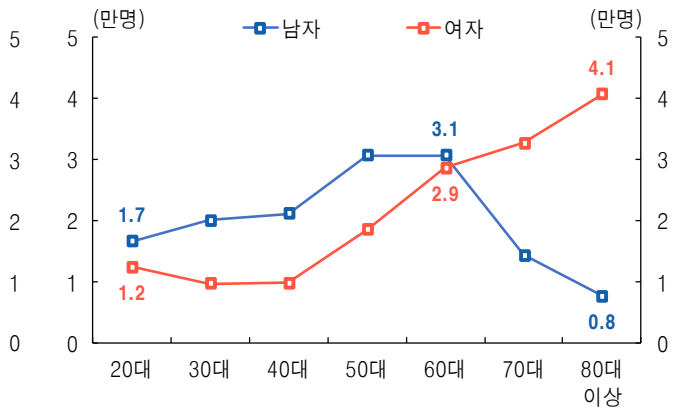


그림 2-2. 전남 1인가구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주: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7.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의 혼인상태별 분포를 보면 20-40대는 미혼, 70대 이상은 사별에 의한 1인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40대는 초혼 연령¹⁾ 상승에 따른 미혼, 50-60대는 이혼, 70대 이상은 사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광주 1인가구 혼인상태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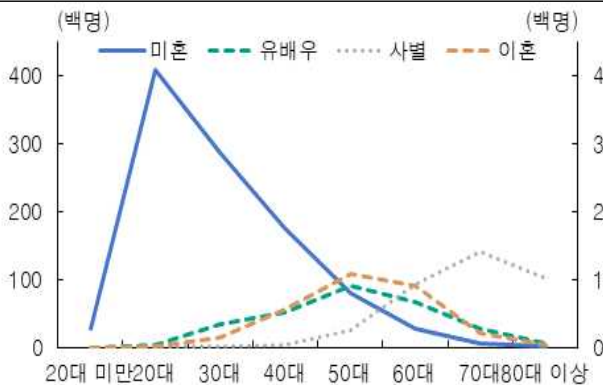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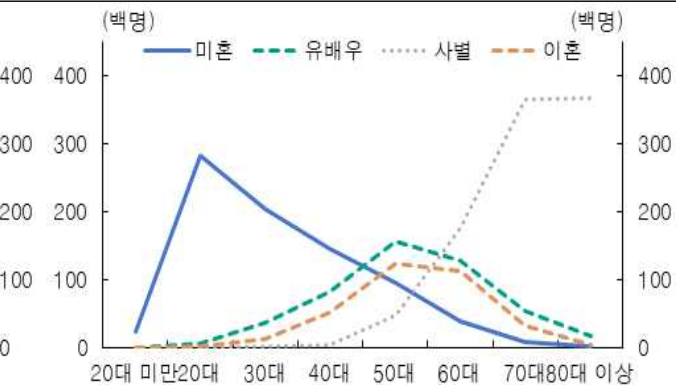


그림 2-4. 전남 1인가구 혼인상태별 분포



주: 2020년 기준, 자료: 통계청

1) 2023년 남성 초혼연령은 33.97세, 여성은 31.45세로 2000년 29.28세, 26.49세와 비교했을 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가구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1인가구주 월평균 소득은 128.3만원으로 다인가구주 월평균 소득(206.3만원)의 62.2% 수준에 불과하며, 여타 광역시 1인가구주 월평균 소득(150.5만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1인가구주 월평균 소득은 103.9만원으로 다인가구주 월평균 소득(158.6만원)의 65.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여타 도 1인가구주 월평균 소득(140.4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광주 및 여타 광역시 가구주 월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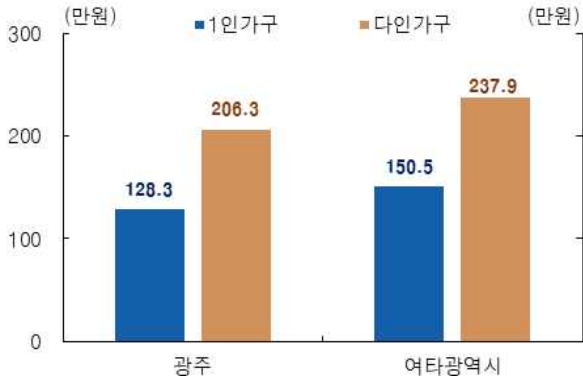


그림 2-6. 전남 및 여타 도 가구주 월평균 소득



주: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2023년 지역별고용조사_하반기 C형」 마이크로데이터, 자체 시산

9.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주는 다인가구주에 비해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1인가구주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50.2%로 다인가구주(56.6%)보다 낮은 반면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31.5%로 다인가구주(14.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비교하면 광주지역 1인가구주는 여타 광역시(상용근로자 비중 55.8%, 임시·일용근로자 26.4%)에 비해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1인가구주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27.2%로 다인가구주(32.0%)보다 낮은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은 31.5%로 다인가구주(1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 1인가구주 비중은 41.3%로 다인가구주(56.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비교하면 전남지역 1인가구주는 여타 도(상용근로자 비중 38.3%, 임시·일용근로자 30.0%, 비임금근로자 31.7%)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광주 가구유형별 가구주 종사상 지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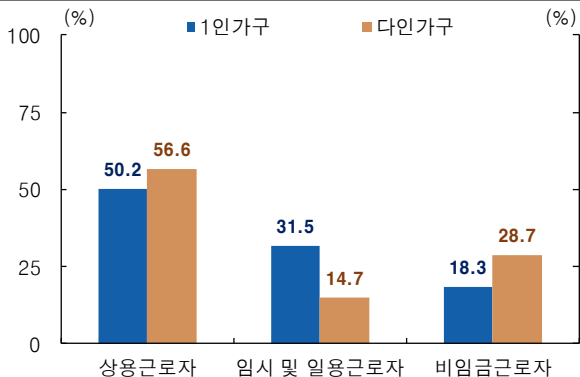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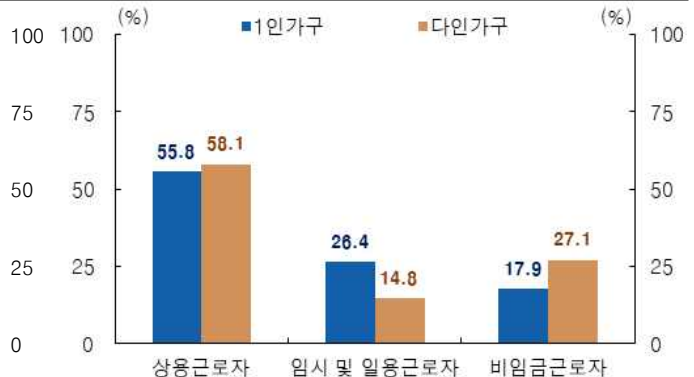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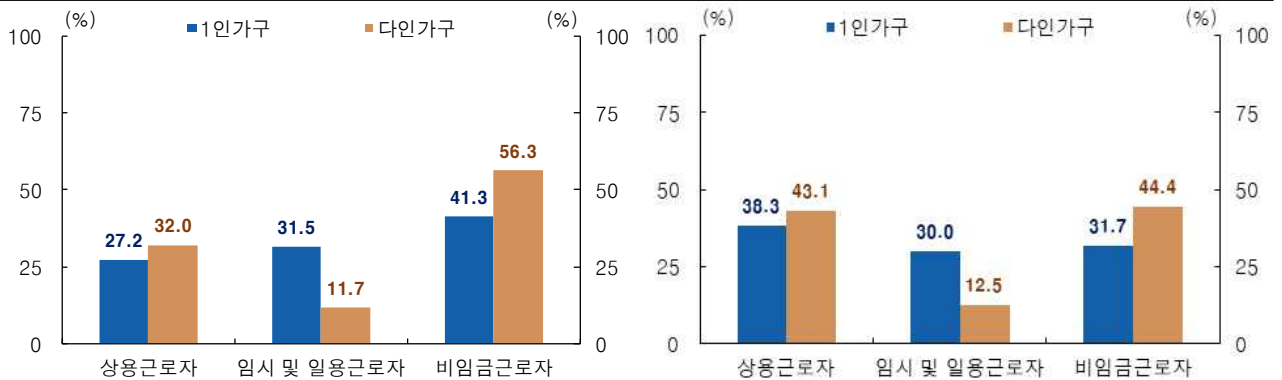


그림 2-8. 여타 광역시 가구유형별 가구주 종사상 지위 분포



주: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2023년 지역별고용조사_하반기 C형」 마이크로데이터, 자체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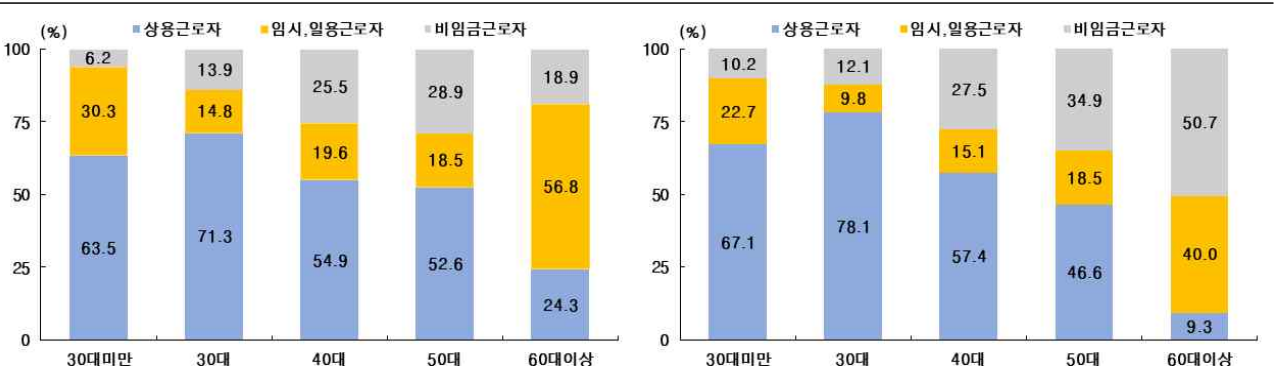
그림 2-9. 전남 가구유형별 가구주 종사상 지위 분포 그림 2-10. 여타 도 가구유형별 가구주 종사상 지위 분포



주: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2023년 지역별고용조사_하반기 C형」 마이크로데이터, 자체 시산

10.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주의 연령별 종사상 지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미만과 60대 이상에서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은 30대 미만 1인가구주의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30.3%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60대 이상에서도 56.8%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30대 미만 1인가구주의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22.7%로 높은 수준이며, 60대 이상에서도 40.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1. 광주 1인가구주 연령별 종사상 지위 분포 그림 2-12. 전남 1인가구주 연령별 종사상 지위 분포



주: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2023년 지역별고용조사_하반기 C형」 마이크로데이터, 자체 시산

11. 광주지역 1인가구의 주된 주택 점유형태는 월세, 전남지역은 자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1인가구 주택 점유형태 중 자가비중은 35.7%로 다인가구(7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반면 월세비중은 47.4%로 다인가구(14.3%)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타 광역시(자가 27.7%, 월세 47.2%)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남지역 1인가구의 주택 점유형태 중 자가비중은 58.0%로 다인가구(77.8%)보다 낮은 수준이며, 월세비중은 25.2%로 다인가구(9.8%)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도(자가 39.9%, 월세 38.2%)와 비교하면 전남지역 1인가구는 자가비중이 높고 월세비중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2-13. 광주 가구유형별 주택 점유형태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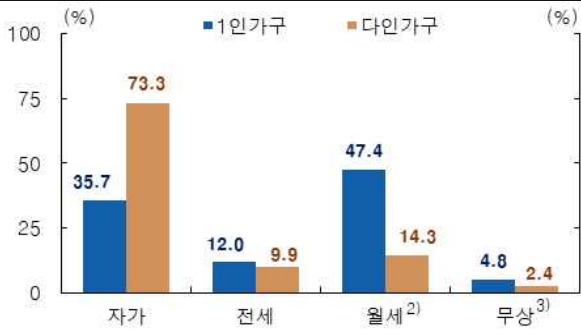


그림 2-14. 여타 광역시 가구유형별 주택 점유형태¹⁾



그림 2-15. 전남 가구유형별 주택 점유형태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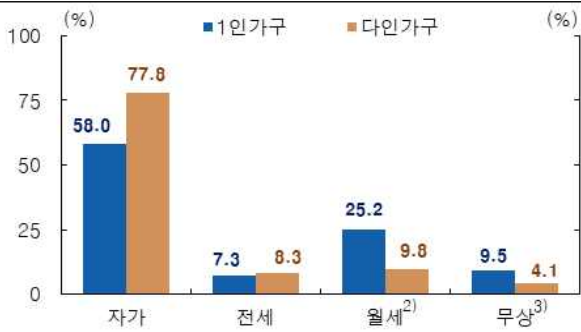


그림 2-16 여타 도 가구유형별 주택 점유형태¹⁾



주: 1) 2020년 기준 2)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를 포함 3) 관사, 사택 등
 자료: 통계청

12.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의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30대미만에서 월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은 30대 미만 1인가구의 월세비중이 71.5%로 가장 높았으며, 30-50대도 4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60대이상은 월세 비중이 낮고 자가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30대미만 1인가구의 월세비중이 58.6%로 가장 높았으며, 30-50대도 30%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반면 60대이상은 월세비중이 낮고 자가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7. 광주 1인가구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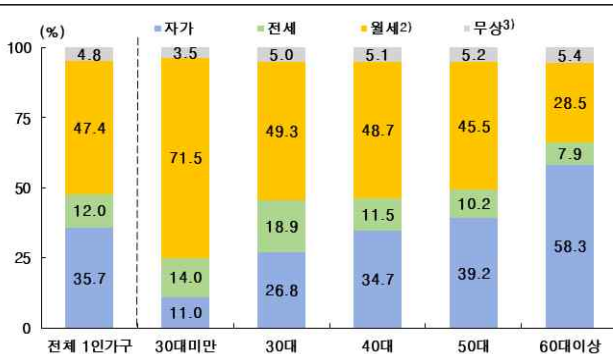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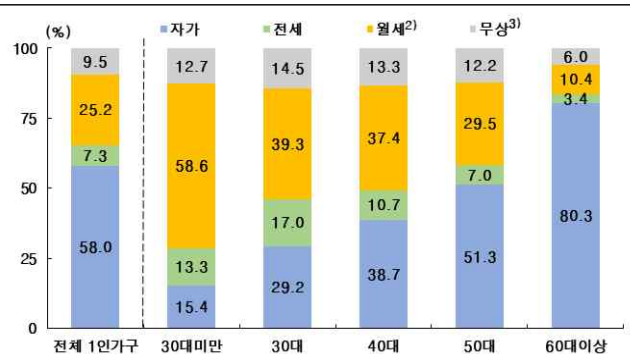


그림 2-18. 전남 1인가구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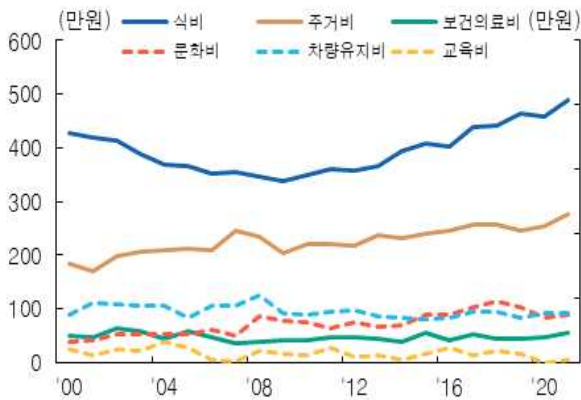
주: 1) 2020년 기준 2)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를 포함 3) 관사, 사택 등
 자료: 통계청

III. 1인가구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분석

1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소비지출 비교

13.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²⁾를 바탕으로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특징을 비교한 결과 1인가구는 식비(외식비 포함)와 주거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1인가구 소비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식비(32.1%), 주거비(18.1%)가 전체 소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광역시의 다인가구 소비지출은 식비(25.4%), 교육비(8.6%), 차량유지비(8.1%), 주거비(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 지역의 1인가구와 다인가구 소비지출 구조는 광역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소비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1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지역 내 소비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 (광역) 1인가구 항목별 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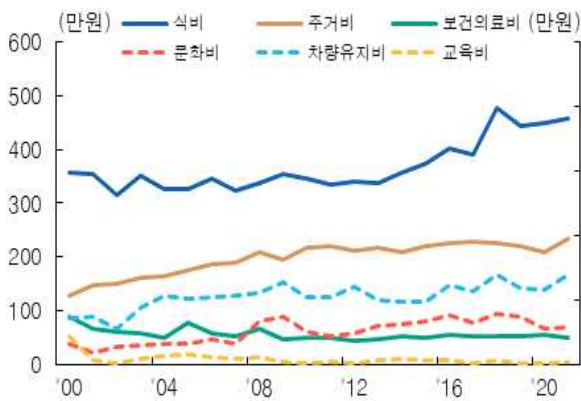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체 시산

그림 3-2. (광역) 1인 및 다인가구 총소비지출 비중



주: 2021년 소비 기준,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체 시산

그림 3-3. (도) 1인가구 항목별 소비지출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체 시산

그림 3-4. (도) 1인 및 다인가구 총소비지출 비중



주: 2021년 소비 기준,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체 시산

2) 1인가구 소비지출 특징 분석을 위해 2000년-2022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만, 서베이 자료 특성상 소득과 소비 데이터는 지난해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조사연도에 맞춰 자료를 조정하였다. 또한 해당 변수들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실질 값으로 조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1인 및 2인 이상 다인가구의 가구주로 제한하였다. 관측치 수 한계로 광주지역은 「광역」(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자료를, 전남지역은 「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4. 회귀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가구유형간 1인당 평균소비지출³⁾ 차이를 분석한 결과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1인당 평균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특성(가구의 나이, 성별, 교육수준, 근로여부, 결혼상태, 가구 거주형태, 소득수준, 가구 내 자녀유무 등), 연도, 거주지역이 나타내는 효과를 통제했을 때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1인당 평균소비지출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구유형에 따라 소비지출 항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1인가구는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에서 다인가구보다 소비가 더 많은 반면, 교육비, 차량유지비, 통신비에서 소비가 더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1인당 평균소비지출 비교

	광역시	도		광역시	도
1. 총 소비지출			6. 교육비(공교육비와 사교육비)		
1인가구 더미	0.127*** (0.0223)	0.130*** (0.0229)	1인가구 더미	-0.181*** (0.0619)	-0.0500 (0.0551)
...
R-squared	0.821	0.830	R-squared	0.526	0.549
2. 식비(외식비 포함)			7. 차량유지비		
1인가구 더미	0.153*** (0.0255)	0.125*** (0.0241)	1인가구 더미	-0.207 (0.126)	-0.206* (0.111)
...
R-squared	0.741	0.753	R-squared	0.347	0.405
3. 주거비			8. 경조사비		
1인가구 더미	0.238*** (0.0267)	0.257*** (0.0285)	1인가구 더미	0.152** (0.0691)	0.00666 (0.0463)
...
R-squared	0.624	0.611	R-squared	0.392	0.372
4. 보건의료비			9. 내구재(전자제품 및 가구 구입비)		
1인가구 더미	0.173*** (0.0637)	0.0781 (0.0514)	1인가구 더미	0.0183 (0.0459)	-0.00356 (0.0408)
...
R-squared	0.241	0.251	R-squared	0.075	0.096
5. 문화비 (취미 및 여가 활동비 등)			10. 통신비		
1인가구 더미	0.221*** (0.0389)	0.183*** (0.0412)	1인가구 더미	-0.213*** (0.0282)	-0.162*** (0.0256)
...
R-squared	0.423	0.409	R-squared	0.656	0.668
관측치 수	53,438	52,517	관측치 수	53,438	52,517

주: 1) *** p<0.01, ** p<0.05, * p<0.1을 나타냄
 2) 소비 및 소득 변수는 균등화한 값 사용
 3) 공간제약 때문에 주요 계수 값만 표시하였으며 나머지 변수들의 계수 값은 표에서 생략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체 시산

3) 가구원 수에 따라 실질적 가구소득과 지출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단위로 표준화하는 균등화 작업이 필요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OECD에서 제안한 제곱근 지수 방법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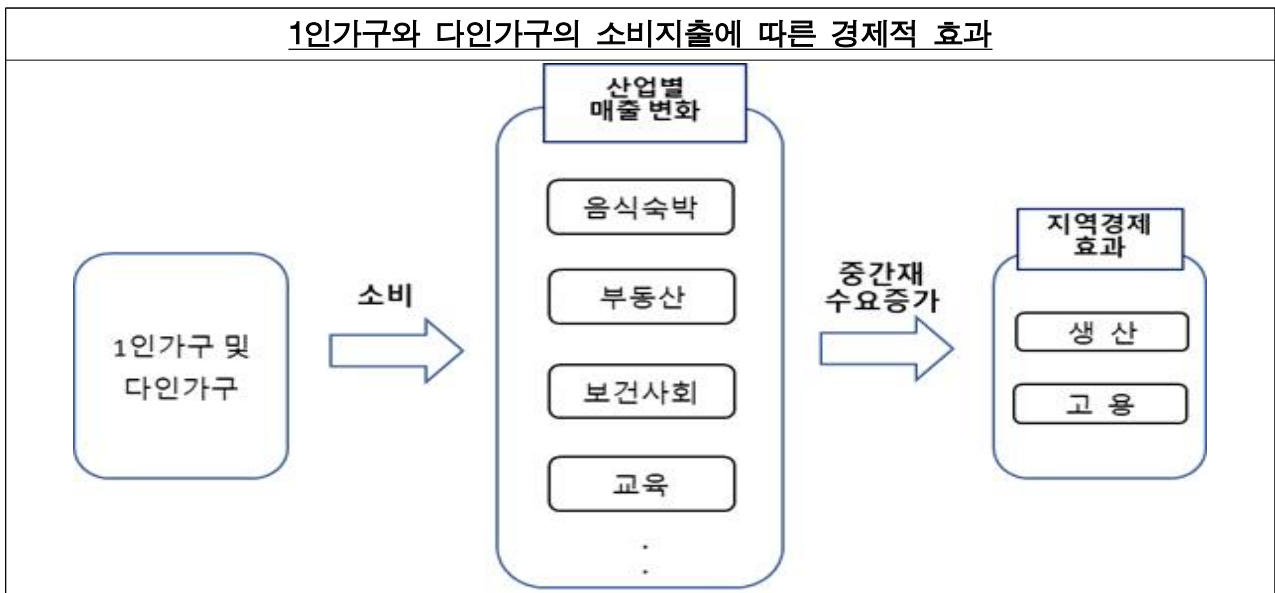
<참고 1> 1인가구 소비지출변화 분석모형

$$Y_{i,r,t} = \beta_1 + \beta_2 \times 1\text{인가구여부}_{i,r,t} + \beta_3 \times X_{i,r,t} + \mu_r + \rho_t + \epsilon_{i,r,t}$$

아래첨자 i 는 가구를 나타내며, r 는 거주지역, t 는 시간을 의미한다. Y 는 로그(log)를 취한 1인당 평균소비지출값을 나타내며, 1인가구 여부는 1인가구면 1, 다인가구면 0인 더미변수이다. X 는 가구주 및 가구 특성을 나타내는 가구주의 나이, 성별, 교육수준, 근로여부, 결혼상태 및 가구 거주형태, 자녀유무, 소득수준 변수를 사용한다. μ 는 지역 고정효과, ρ 는 연도 고정효과, ϵ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해당 분석을 통해 얻은 베타값(β_2)은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간 1인당 평균소비지출 차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베타값이 양수면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1인당 평균소비지출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음수면 1인가구의 소비지출이 다인가구보다 작은 것을 의미한다.

- 15. 1인가구 및 다인가구의 소비항목 차이는 지역 내 산업 구조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식비·주거비 등 특정항목에 소비가 편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향후 1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지역 내 소비와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6. 가구유형별 월 평균소비지출자료(통계청)⁴⁾와 지역산업연관표(한국은행)⁵⁾를 활용하여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소비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가 음식숙박, 부동산, 보건복지, 교육 등을 소비함으로써 지역 내 산업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이와 연관된 산업들의 중간재 수요를 증가시켜 지역경제의 생산과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세부항목별 소비지출 구조를 파악한 후 각각의 소비지출이 지역경제의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참고 2> 산업연관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관표의 개념에 따르면 총투입액(=중간투입+부가가치)과 총산출액(=중간수요+최종수요) 사이에는 항등식이 성립하며, 다음과 같은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AX + Y = X$$

(단, A는 투입계수행렬, X는 총산출액벡터, Y는 최종수요벡터)

$$X=(I - A)^{-1}Y$$

$(I - A)^{-1}$ 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Y)가 1단위 증가할 때 총산출액(=X)이 증가하는 양을 나타내는 생산유발계수로, 해당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효과를 합산한 것이다. 생산유발계수에 취업계수를 적용하여 고용유발계수를 도출하였다.

4) 2022년 가계동향조사(통계청)의 가구원수별 월 총소비지출 통계자료에 2023년 광주·전남 지역의 1인가구 및 다인가구 수를 곱하여 해당 지역의 가구유형별 총소비지출 데이터를 산출하였다.

5) 지역산업연관표는 지역별 상이한 생산기술구조와 거래형태를 반영하여 지역 간 및 산업 간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 통계표이다.

17.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의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는 다인가구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1인가구의 소비지출은 지역 내 음식숙박, 부동산, 음식료품, 보건복지 부문에서 생산유발효과가 크지만 교육, 정보통신방송, 금융보험 등에서는 유발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인가구의 소비지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인가구보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필수품목 외 교육,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 보다 다양한 부문에서 생산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남지역 1인가구의 소비지출은 지역 내 음식료품, 음식숙박, 제조업(음식료품 제외), 보건복지 부문에서 생산유발효과가 크지만 교육 부문에서는 유발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인가구의 소비지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음식료품, 제조업(음식료품 제외), 보건복지, 교육, 음식숙박 등의 산업에서 생산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5. 광주지역 1인 및 다인가구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 내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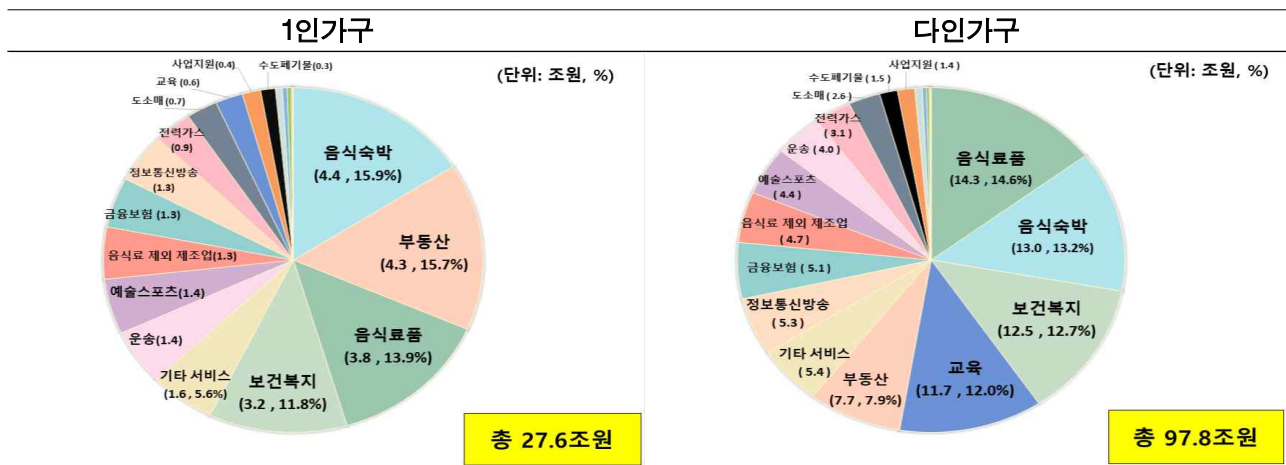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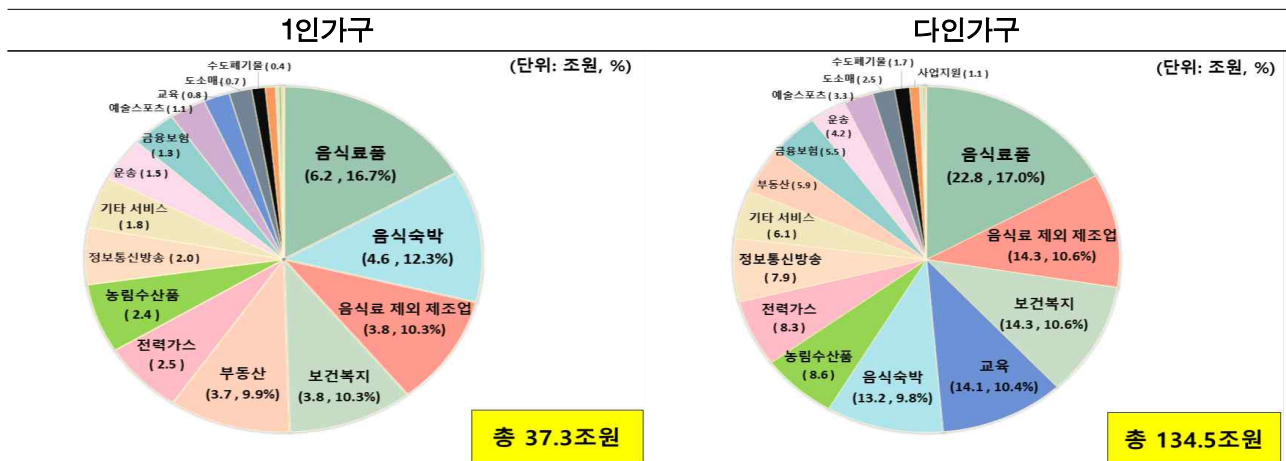


그림 3-6 전남지역 1인 및 다인가구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 내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자료: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2015),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22), 자체 시산

18. 광주·전남지역 1가구의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 내 고용유발효과는 다인가구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1인가구의 소비지출은 지역 내 음식숙박, 보건복지, 기타서비스⁶⁾, 운송 부문에서 고용유발효과가 크지만 교육 부문에서는 유발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인가구의 소비지출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는 1인가구보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음식숙박, 보건복지, 교육, 기타서비스, 운송 등에서 고용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1인가구의 소비지출은 지역 내 음식숙박, 보건복지, 농림수산물, 기타서비스 부문에서 고용효과가 크지만 교육, 금융보험 부문에서 고용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인가구의 소비지출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는 보건복지, 음식숙박, 농림수산물, 교육, 기타서비스 등 보다 다양한 부문에서 고용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7. 광주지역 1인 및 다인가구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 내 산업별 고용유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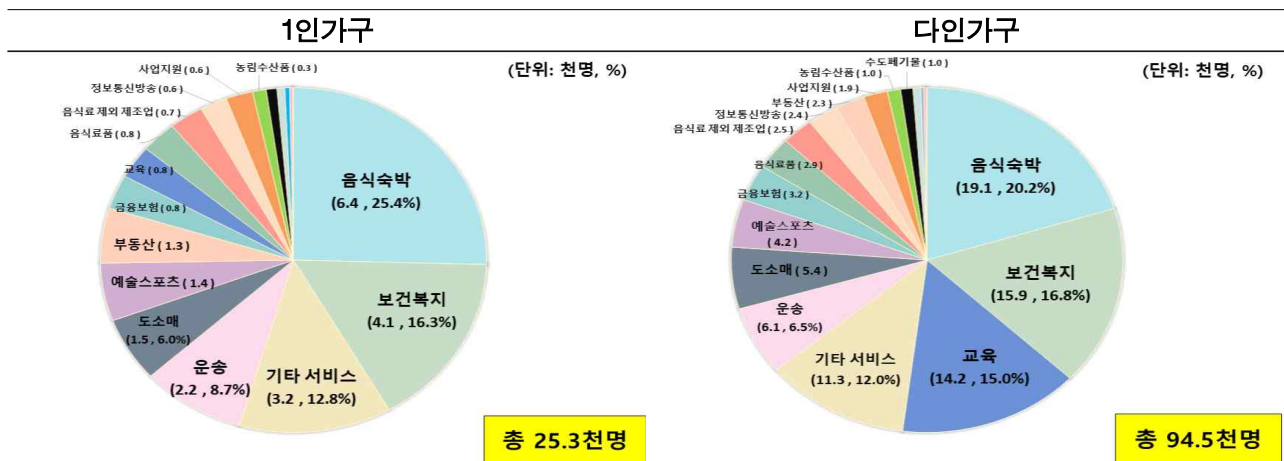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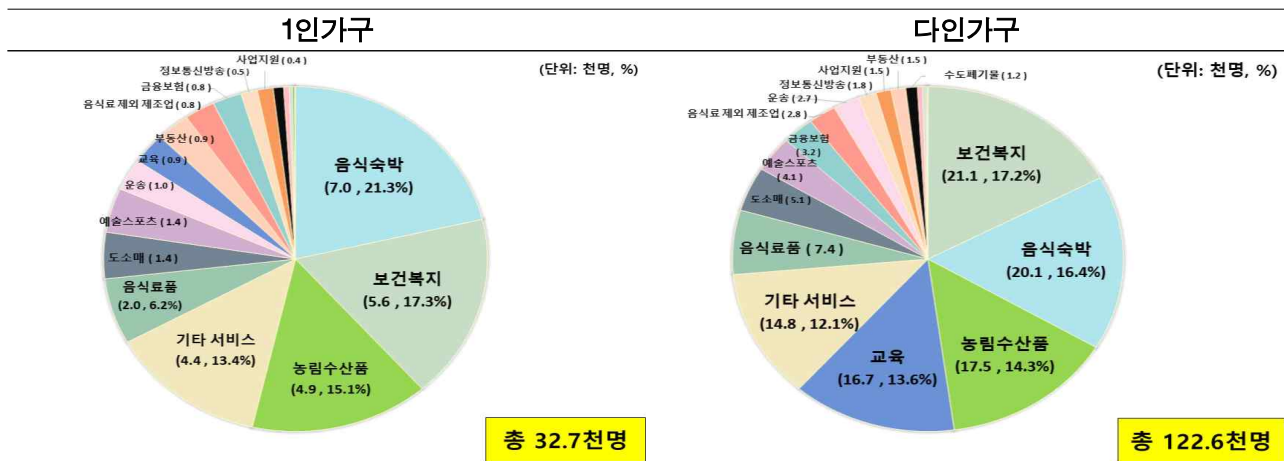


그림 3-8. 전남지역 1인 및 다인가구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 내 산업별 고용유발효과



자료: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2015),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22), 자체 시산

6) 기타서비스업에는 산업 및 전문가 단체, 기타 협회 및 사회단체,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미분류 자가소비 생산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

19.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초혼연령 상승과 인구 고령화로 광주 지역은 20-30대와 60대, 전남지역은 60대 이상의 1인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30-50대, 여성은 70대 이상에서 1인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주로 20-40대는 미혼, 50-60대는 이혼, 70대 이상은 사별로 인해 1인가구가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 특히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소득 수준과 고용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은 다인가구주의 약 60% 수준에 불과하고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다인가구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광주·전남지역 모두 30대미만과 60대이상에서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의 주거안정성은 다인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1인가구의 월세 거주 비율은 47.4%로 다인가구(14.3%)보다 3배 이상 높으며, 전남지역에서도 1인가구의 월세(25.2%) 비중은 다인가구(9.8%)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광주지역은 30대미만에서 71.5%로 월세 비중이 가장 높고, 30-50대에서도 40%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남지역은 30대미만에서 58.6%로 월세 비중이 높으며, 30-50대에서도 30%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22. 가구유형간 1인당 평균소비지출 차이를 분석한 결과 1인가구가 다인가구보다 1인당 평균소비지출이 많고 식비·주거비 등 필수재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소비지출이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음식숙박, 부동산, 음식료품 등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인가구의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1인가구보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필수재 외 교육, 금융보험, 정보통신 등의 산업에서도 생산 및 고용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구조의 변화는 지역 내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지역 내 음식숙박, 부동산, 보건복지 등 특정 산업이 전체 지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커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다인가구 중심의 소비구조에서 활성화되던 산업(교육, 금융보험, 정보통신 등)은 상대적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 이러한 소비구조 변화는 산업 구조의 재편과 지역 경제의 성장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1인가구 비중 증가에 따라 특정 산업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일부 산업의 위축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24. 따라서 1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소비구조가 변하고 특정 산업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지역 경제의 성장과 복지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형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25. 첫째, 1인가구의 소득 기반 강화를 위해 고용안정 정책이 요구된다. 1인가구의 고용안정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고용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1인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기회 확대,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층 1인가구가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노인 일자리 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6. 둘째, 1인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1인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 확보는 결혼 및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인가구가 월세에서 자가·전세 등의 주거 형태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인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27. 셋째,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역 산업 전반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1인가구의 소비가 특정 산업에 집중될 경우 산업 구조가 단순화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면 교육 산업을 성장시키면서 고용안정성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소형 주거시설 공급 및 공유형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면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지역 부동산·건설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배준형(2018), “광주지역 1인 가구의 특징 및 시사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보건복지부(2023), “사회보장행정데이터로 본 1인가구 데이터”
- 유진성(2020), “1인 가구의 특성 분석과 경제적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 이재호, 유지원(2024), “최근 1인 가구 확산의 경제적 영향 평가: 소비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 이준범, 원영진(2020), “전남지역 관광 현황 및 경제적 효과”, 한국은행 목포본부
- 정혜리(2020), “최근 대구지역 1인 가구 주요 현황 및 특징”,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 통계청(2020), 인구총조사
- 통계청(2022), 가계동향조사
- 통계청(2023), 인구총조사
- 통계청(2023), 지역별고용조사